

샤프론(Chaperone) 제도와 일관성 없는 어린 배우들의 무대 출연규정

글_김준영(런던 통신원, 런던 ILOVESTAGE Ltd. 프로듀서 junyoung.kim@ilovestage.com)

매년 런던 극장협회는 어린 관객들이 공연을 더욱 적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 행사 기간을 발표하는데 바로 “아동 주간(Kids Week)”이 그것이다. 대부분 8월에 시작하며 16세 이하의 아동은 부모님(동행하는 성인)이 티켓 정가를 모두 지불할 경우 두 명까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며 세 번째 아이부터는 50% 할인을 해주는 행사이다. 영상미디어와 달리 공연 관객의 고령화를 걱정해 1998년 처음 콘셉트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한 주만을 지정해 진행하다 이제는 8월 한달 내내 약 30여 개 다양한 공연 작품들이 참여하며 미래의 관객 개발에 초점을 두면서 공연 관람 및 워크숍을 함께 진행하기도 한다. 2012년엔 런던이라는 도시를 세계에 알리는 비지니스(정책)나 사람, 장소 등에 수여하는 런던 생활대상(London Lifestyle Award)에서 최우수 문화 상품상을 받기도 했던 제도다. 물론 이런 행사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 단위의 공연시장이 조금씩 확대되어왔고 그러다 보니 어린 관객과의 동년배 아이들이 배역으로 등장하는 작품들이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꾸준히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최근 공연계에서 이와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이번호에 다루고자 한다.

현재 영국 공연업계에 적용되는 어린이 배우들의 무대 작업 규정이 좀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경계 수위를 넘어감에 따라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이는 영국의 미디어와 연예계 종사자 노조인 BECTU(Broadcasting, Entertainment, Cinematograph and Theatre Union) 측에서 공연, 영화, 디지털 미디어를 포함한 예술, 그리고 텔레비전 산업의 고용주들에게 긴급 대화를 요청했고 이 분야에서 활동중인 어린 배우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샤프론(Chaperone-아역 배우들의 사회 활동을 돕는 사람)을 더 고용해 일관된 아동 보호정책을 유지해 달라는 요구에서 출발한다. 현재는 샤프론 라이선스를 취급할 때 두 개의 서로 다른 추천서와 지원자의 아동 학대의 전력을 조사하고, 인터뷰를 거쳐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해당 지역 카운슬(Council-행정기관)에서 발급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캠페인을 담당한 BECTU 노조 측은 영국 연예계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규정을 강화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것 같으며, 노동 시간, 휴식, 간식, 출퇴근 지원, 그리고 무대 활동으로 인해 뒤쳐질 수 있는 학업에까지 확장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최근 5시간짜리 장편 연극인 <해리포터>에 고용된 샤프론들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업계에 맡기고 떠나려면 전국적으로 각 지역마다 나누어진 샤프론 라이선스 제도가 통일되고 국가적 스탠다드를 갖추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규정이 있으나 해당 지역 카운슬마다 달리 해석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특히 지원자의 아동 범죄 기록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는점을 지적한다. 한 번 샤프론으로 지원해 라이선스를 취득한 후 다시 취득할 때 단지 두 장의 추천서만으로 믿고 발급하는 행정관의 안이한 관례를 언급한 것이다. 그래서 서인지 업계엔 “내가 기르던 강아지도 샤프론의 손에 잠시 맡기는것도 불안하다”는 말이 돈다는 것이다.



(Matilda)



(Billy Elliot)

영국의 일반적 절차 및 노동시간 규정(Children In Entertainment)

제작사에서 어린 연기자가 필요할 경우 무조건 그 어린이가 살고 있는 지역행정당국(Council)을 통해 공연제작 시 해당 연기자에게 제공될 건강, 복지, 휴가 및 학교 교육 등 상세한 내용을 먼저 신고하고 아이가 공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늦어도 리허설 시작 21일 전에 라이선스를 확보해야 한다. 해당 지역의 업무담당자는 이후 정부유관기관(NNCFE)으로부터 노동허가서를 취득해야 그 어린이를 공연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작사 및 배역을 맡은 어린 배우의 부모, 샤프론 등 모두가 유념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항목(단위: 하루)/ 나이	0~4세	5~8세	9세 이상
공연장이나 리허설 공간에 최대 머물 수 있는 시간	7am~10pm 사이 5시간	7am~11pm 사이 8시간	7am~11pm 사이 9.5시간
리허설을 포함해 한 번에 휴식 없이 연속할 수 있는 최대 시간	30분	2.5시간	2.5시간
최대 리허설 및 공연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
최소 휴식(식사 포함) 시간	한 번에 15분 이상, 작업이 4시간 이상일 경우 식사시간 45분 보장	한 번에 15분 이상, 작업이 4~8시간 일 경우 식사시간 45분 보장, 8시간 이상일 경우 15분 추가	한 번에 15분 이상, 작업이 4~8시간일 경우 식사시간 45분 보장, 8시간 이상일 경우 15분 추가
교육	적용사항 아님	최소 3시간, 주 15시간 이상 보장	최소 3시간, 주 15시간 이상 보장
휴일 없이 최대 연속 근무일	6일	6일	6일

아동 노동 규정을 밝혀놓은 'The Children (Performances and Activities) Regulations 2014' 를 근거로 런던 리치몬드 카운슬 규정의 예(Richmond 카운슬 자료 제공)

제작사 측에선 오디션 기간을 포함해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아이들이 부모나 샤프론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단 둘이 있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며, 이 같은 규정은 리허설 기간에도 법적 보호자가 아닌 사람들 즉, 연출가, 프로덕션 매니저, 안무가 또는 배우들과 함께 있다고 해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부모가 아니라면 샤프론, 또는 독립 고용된 제3의 보호자의 손에 무조건 맡겨져야만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 이해 당사자인 아이들의 부모들이 제작사의 돈을 받고 샤프론 역할을 대행하는 것인데, 런던 웨스트엔드에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되었지만 여전히 지방 극장에서는 경험도 없는 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규정상 필요한 최소한의 트레이닝도 받지 않고 자격을 획득하고 있어 법망을 피해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BECTU 측에서는 아이들의 보호와 병행해 샤프론 역할을 하는 분들의 정당한 임금, 노동시간, 그리고 휴일 보장을 위해서도 캠페인을 하고 있다. 극장 산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샤프론이 여성에게 집중되어있고 오랜 세월동안 여성의 노동은 남성들과 비교해 낮은 가치로 인식되어 왔다. 그래서인지 매년 임금 상승폭이 크지 않아 하는 일에 비해 여전히 보수는 덜 지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 분야에서도 전문성에 대한 등급이 있어 자원봉사의 일환으로 하고있는 사람들과 아동 보호관련 자격증을 확보한 프로들도 있어 보수와 함께 업계 인식의 전환도 시급해 노조에서는 샤프론들을 "제작팀의 필수적인 멤버"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청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점점 커지고 있는 우리의 가족극 시장과 많게는 백억 단위의 외국 뮤지컬의 라이선스 작품에도 어린 배우들이 자리하고 있어 이제는 우리도 이 분야에 대한 제작사의 뚜렷한 인식 전환과 업계 스스로의 규정이 필요한 때다. 📌

사진_ILOVESTAGE 제공